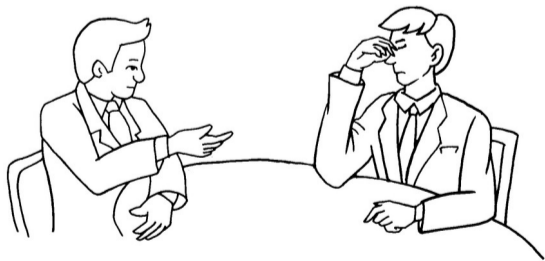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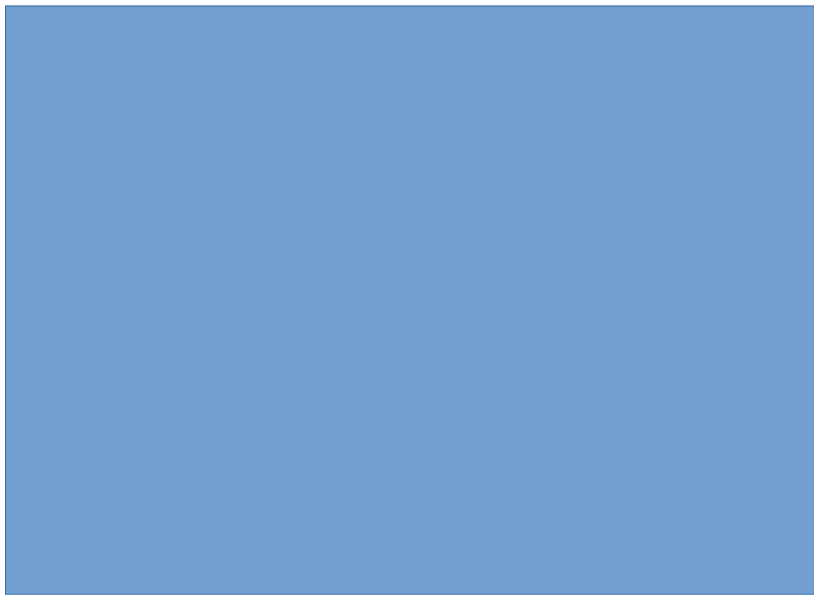


# 언어 영역

- 먼저문제지에 성명과수험번호를 정확히기입하십시오 .
- 답안지에수험번호 , 응시계열 , 문형 , 답을표기할 때에는 반드시 ' 수험생이 지켜야할일 ' 에따라표기하십시오 .
- 문항에따라배점 다르니 , 각물음의끝에 표시된 배점을참고하십시오 . 1 점과 3 점 문항에만 점수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 점수표시가 없는 문항은 모두 2 점입니다 .

1 번부터 6 번까지는 듣고 답하는 문제입니다 . 방송을 잘 듣고 답을 하십시오 . 들은 내용은 한 번만 방송됩니다 .



: 자네가 그 일 좀 대신 맡아 주는 게 어떤가?  
 : 글썄, 만만치 않은 일이라 좀더 생각해 봐야겠어.  
 : 김 과장, 어제 건네준 내 제안서는 읽어 보았나?  
 B : 아, 요즘 경황이 없어서 미처 읽어 보지 못했는데요.  
 : 소문 들었어? 이번에 휴가가 삼 일로 늘었대.  
 : 어, 그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런 말 없었는데.  
 : 그 회의에 가서 우리 의견을 확실히 전달하고 와.

B : 그럼, 점심 먹고 오후쯤 갔다와도 될까요?  
 : 이번에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여행이나 함께 떠나자.  
 B : 음, 가고는 싶은데 시간이 날까 모르겠어.

아닌 것은? \_\_\_\_\_

[5~6] 들려주는 내용을 잘 듣고, 5 번과 6 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잘못 정리한 부분은? [1 점] \_\_\_\_\_

먼 것은? \_\_\_\_\_

이제 들이 문제가 끝났습니다 . 7 번부터는 문제지 뒤쪽에 따라 답을 하십시오 .

# 언어 영역

야,  
바다다!

정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 점]

않은 것은?

않은 것은?

## 언어 영역

아닌 것은?

---

# 언어 영역

[15~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나 두 야 간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아늑한 이 항구 - 나 들 손쉽게야 버릴 거냐  
안개같이 물 어린 눈에도 비치나니  
골짜기마다 밭에 익은 뿔부리모양  
주름살도 눈에 익은 아 - 사랑하던 사람들

㉠

버리고 가는 이도 못 잊는 마음  
쫓겨 가는 마음인들 무어 다를 거냐

돌아다보는 구름에는 바람이 희살짓는다

언덕인들 마련이나 있을 거냐

나 두 야 가련다  
나의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야 보낼 거냐  
나 두 야 간다

- 박용철, 떠나가는 배 -

경청한다

삼천리 화려 강산의  
을속도에서 일정한 군(군)을 이루며  
갈대숲을 이룩하는 흰 새떼들이  
자기들끼리 끼룩거리면서  
자기들끼리 낄낄대면서  
일렬 이열 삼열 횡대로 자기들의 세상을  
이 세상에서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간다  
우리도 우리들끼리  
낄낄대면서  
깔쭉대면서  
우리의 대열을 이루며  
한 세상 떼어 떼고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대한 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로  
각각 자기 자리에 앉는다  
주저앉는다

- 황지우,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

㉠  
㉡

㉢

근간	근원
근원	근간
근간	근본
근본	근간
근본	근원

# 언어 영역

복신(??)을 바라보며

상시(??) 노루(재?)를 천일방(???)에 지게 한다.  
우리 동방 문물이 한당송(???)에 지라마는  
국운이 불행하여 해추(??) 흥모(??)\*에 큰 수치를 안고 있어  
백분에 한 가지도 못 씻어 버리거든  
이 몸이 무상(??)한들 신자(??) 되어 있었다가  
궁달(十寸)이 길이 달라 못 모시고 늙었지만

- 정희성, 저문 강에 샅을 씻고 -

- 김광규,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 -

않은 것은?

우국(??) 단심(??)이야 어느 각(±)에 잇을런고.

강개(江介) 겨운장기(??)는노당익장(???) 하다마는  
조그마한 이 몸이 병중에 들었으니  
설분신원(???)\*\*이 어려울 듯 하건마는  
그러나 사제갈(??←)도 생중달(??寸)을 멀리 쫓고  
발 없는 손빈(??)도 방연(??)을 잡았거든  
하물며 이 몸은 손발이 갖춰 있고 명맥(??)이 있었으니  
서절구투(??)\*\*\*를 조금이나 두려워할까.

㉠

- 박인로, 선상탄(???) -

- \* 해추 흥모 : 바다 도적의 음흉한 모략.
- \*\* 설분신원 : 분하고 원통한 마음을 씻음.
- \*\*\* 서절구투 : 쥐나 개처럼 남의 것을 몰래 훔치는 무리.

구시월 서릿바람에 낙엽같이 헤치리라.

근심과 즐거움이 서로 같지 못하구나.

바다 물결 없는 평안함을 다시 보려 하노라.

일엽주(???) 아니면 어디 붙어 다닐런고.

아득한 물결은 긴 하늘과 한 빛일세.

- 유치환, 생명의 서 -

- 김수영,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

- 김지하, 서울길 -

# 언어 영역

잘못된 것은? [1 점]

[21~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들어가두 괜찮으니?"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마루 위로 오른다. 걷기보다는 몸을 위로 올리기가 더 힘들다. 바깥이 조용해진다. 아마 주사와 선생은 술집으로 간 모양이다. 소년이 책 □

나부랭이를 챙겨 가지고 나온다. 부러진 연필 토막이 희미한 남포 불빛을 받아 눈에 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허리를 굽히고 방 안으로 들어선다. 어둡고 냄새가 고약하다. 소년이 불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와 벽 중간쯤에 있는 못에다가 건다. 호야가 양철에 부딪치면서 소리를 낸다. 소년이 나간다. 그는 불 건너편 벽에 기대앉아서 담배를 피워 문다. 연기를 내뿜는다. 불꽃이 한참 있다가 흔들린다.

소년이 침구를 안고 다시 들어온다. 그리고 그것을 편다. 일어설 때 보니 가슴에 훈장이 달려 있다. 그는 그를 가까이 불러서 그 훈장을 들여다본다. 동근 바탕에 가로로 5년 2반이라 써어 있고 그것을 가로질러서 세로로 반장이라 써어 있다. 조잡한 비닐 제품이다.

"너 공부 잘 하는구나."

"예. 접대두 일등했어요."

아, 이걸 뽀뽀스립구나, 못생기고 남루한 옷을 입은 주제에.

"여기가 너희 집이니?"

"아네요, 여긴 이모부 댁이에요. 저이 집은요, 월출리예요. 여기서 삼십 리나 들어가요."

가난한 대학생. 덜커덩거리는 밤의 전차. 피곤한 승객들. 목선 경적 소리. 종점에 닿으면 전차는 앞뒤 아가리를 벌리고 사람들을 뺏어 낸다. 사람들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 간다. 초라한 길가 상점들의 희미한 불빛들이 그들을 건져 낸다. 그들은 고개들을 가슴에 묻고 조금씩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간다. 그리고 은밀히 하나씩 돌씩 골목들 속으로 자취를 감춘다. 가난한 대학생 앞에 대문이 나타난다. 그는 그 앞에 선다. 뒤를 돌아본다. 그리고 망설인다. 아, 이럴 때 팡팡 두드릴 수 있는 대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는 주먹을 편다. 편 손바닥으로 대문을 어루만지듯 흔든다. 또 흔든다. 고무신짝 끄는 소리가 들려 온다. 식모의 고무신짝은 겸손하게 소리를 낸다. 그는 안심한다. 안심이 배 속으로 쑥 가라앉는다.

"학관 여기서 다니니?"

그는 눈을 게슴츠레하게 뜬다. 심지를 줄인 남폿불이 눈앞에서 가물거리고 있을 뿐 소년은 보이지 않는다. 방바닥이 따뜻하다. 술이 점점

더 취해 오른다. 그는 옷을 입은 채 허리를 굽히고 손발을 이부자리 밑으로 쑤셔 넣는다. 넥타이를 풀어야지. 그러면서 그는 눈을 감는다.

"일등을 했다구? 좋은 일이다. 열심히 공부해라.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 미국, 영국, 불란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내 돈 한푼 안 들이고 나랏돈이나 남의 돈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다. 돈 없는 건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혼한 것이 장학금이다. 머리와 노력만 있으면 된다. 부지런히 공부해라, 부지런히. 자신을 가지고."

그러나 그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알아들을 수도 없다. 그는 입을 다물고 흥얼거렸다. 그 말이 끝나

자 그의 머릿속에는 몽롱한 가운데에 하나의 천재가 열등생으로 변모해 가는 과정들이 하나씩 떠오른다. 너는 아마도 너희 학교의 천재일 테지. 중학교에 가선 수재가 되고, 고등학교에 가선 우등생이 된다. 대학에 가선 보통이다가 차츰 열등생이 되어서 세상으로 나온다. 결국 이 열등생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고생해 온 셈이다. 차라리 천재이었을 때 삼십 리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땀나무꾼이 되었던 것이 훨씬 더 나았다. 천재라고 하는 화려한 단어가 결국 촌놈들의 무식한 소견에서 나온 허사였음이 드러나는 것을 보는 것은 결코 즐거운 일이 못된다. 그들은 천재가 가난과 끈질긴 싸움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열등생이 되어 버린다는 사실을 몰랐다. □

누구나

가 다 템스 강에 불을 처지를 수야 없는 일이다. 허영계 색이 바랜 짧은 바지를 입고 읍내까지 몇 십 리를 걸어서 통학하는 중학생. 많은 동정과 약간의 찬탄. 이모 집이나 고모 집이 아니면 삼촌이나 사촌네 집을 전전하면서 고픈 배를 졸라매고 낯고 무거운 구식의 커다란 가죽 가방을 옆구리에다 끼고 다가오는 학기의 등록금을 골똘히 생각하며 밤늦게 도서관으로부터 돌아오는 핏기 없는 대학생. 그러다 보면 천재는 간 곳이 없고, 비굴하고 피곤하고 오만한 낙오자가 남는다. 그는 출세할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어떠한 것도 주임 교수의 인정을 받는 일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 외국에 가는 기회는 단 하나도 그의 시도를 받지 않고 지나치는 법이 없다. 따라서 그가 성공할 확률은 대단히 높다. 많은 것들 중에서 어느 하나만 적중하면 된다. 그런데 문제는 적중하느냐 않느냐가 아니라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데에 있다. 적중하건 안 하건 간에 그는 그가 처음 출발할 때에 도달하게 되리라고 생각했던 곳으로부터 사뭇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와 있음을 깨닫는다. 아 □ 되찾을 수 없는 것의 상실임이여!

- 서정인, 강 -

잘못 지적한 것은?

# 언어 영역

얹은 것은? [1 점]

떨거지들을 중심으로 하여 바둑, 장기로 세월을 보내고 저녁때면 술추렴이나 다니는 회이다. - 염상섭, 만세전 -

년을 꺾어차구 다니니 하늘이 알아보실 일이지. - 채만식, 탁류 -

너석을 내쫓자, 이놈이 제일 말썽이다.

- 김성한, 무명로 -

푸네기가 네댓 명이나 되었다.

- 송기숙, 녹두장군 -

떼가 높은 목소리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었다.

- 김승옥, 차나 한 잔 -

[26~2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때 6·25 직후  
곳 서울 변화가에 위치한 최 노인의 집

얹은 것은? [3 점]

(넋두리 외우듯) 나 원…… 일이 이렇게 하나부터 열까지 비투러지다니 정말 집을 옮기든지 해야지…… 자식 놈이라고 벌어 대기를 하는가, 장사가 제대로 되는가…… 나 원…… 게다가 가게문을 닫은 지가 두 달이나 되었는데 무슨 놈의 세금은 세금이야! 설상가상으로 저 빌어먹을 낮도깨비 때문에 화초밭이 망쳐지는 것은 고사하고 집 기둥까지 썩게 되었으니…… 에잇 참!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최 노인의 눈치를 봐 가며) 여보 영감…….

최 노인 뭐요?

어머니 내 생각 같아서는……. (사이)

최 노인 뭣이 어쨌어?

다른 집으로 갈아 잡는 게 상책일 것 같으오만…….

최 노인 (

말없이 눈만 부릅뜬다.)

어머니 애들하고는 여러 번 의논도 했어요.

최 노인 아까 경제 얘기 말ियो?

어머니 예.

최 노인 내가 싫다면 안 되는 일이야…….

# 언어 영역

어머니 그러니까 여태 말을 못 꺼냈죠.

최 노인 이건 내 집이라는 걸 알아야 돼!

사람이 살기 위해서 집이 있지, 사람 죽고 집만 있으면 뭘 해요  
글쎄…….

최 노인 우리에게 남은 것이라곤 이 집뿐이야.

누가 그걸 모르나요. 하지만 이 집을 영영 없애 버리자는 것도  
아니고 좀 작은 집으로 갈자는 게죠.

최 노인 이 집은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사 주신 집이야!

그렇다고 자식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기도 못 피는 꼴을 보고만  
있겠어요?

최 노인 뭐라고?

경수만 하드래도 빈손으로 취직을 하자는 것이 틀린 재산이죠.  
요즘 세상에 공 안 들이고 되는 일이 있답데까?  
그래 경수 취직 자금을 얻기 위해서 집을 팔자는 거야?  
그것뿐이 아니죠. 경애도 시집 보내야겠고 내년이면 경재가  
대학에 가야 하고…… 앞으로 돈으로 메꾸어야 할 일이 어디  
한두 가지예요?

최 노인 (긴 한숨을 내쉬다.)

나도 무엇이 좋아서 오십 년 동안 살아온 집을 팔자고 하겠우…  
… 하지만 참대 같은 자식들을 위해선…….  
(

말없이 일어서 화초밭으로 가서 물끄러미 내려다 보  
고만 있다.)

우리야 이제 살면 얼마나 더 살겠어요. 젊은 애들이 불쌍하지…  
….(

하며 눈시울을 누른다.)

경운이가 어느새 나와 마루에 서 있다. 최 노인은 좌우의 건물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더니 서서히 대문 쪽으로 나간다.

(… 중략 …)

어머니 너무 염려 마세요. 어떻게 되겠죠. 설마 굶어 죽기야  
하겠어요.

(눈물지으며) 굶는 게 두려우겠니? 사는 일이 두렵지.

이때 화려한 양장을 한 경애가 방에서 나온다.

(감탄을 하며) 언니! 그렇게 차려 놓고 보니까 진짜 배우 같군요!

경애 언제는 가짜였니!

경운 김칫국 먼저 마시네요. 호…….

경애 요 계집애가…….(

하며 구두를 신는다.)

어머니 일찍 좀 들어오너라.

일이 끝나야죠. 참 어머니 오늘 일이 해결만 되면 염려 없으셔  
…… 이보다 더 좋은 집도, 자가용도 그리고 오빠 취직도 만사  
오케로 척척박사일 테니까요.

잔소리 말고 시집이나 가! 그까짓 영화배우를 평생 할 테냐!

어머나 남의 인격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나는 지금 나의  
일생을 결정짓는 가장 중대한 인생의 위기에 서 있는 거예요.

아이…… 언니두, 그런 말을 어머니께서 알아들으셔야죠!

(명랑하게 웃으며) 나의 유일한 협력자요 후원인은 경운이  
너뿐이구나!

- 차범석, 불모지 -

않은 것은?

않은 것은? [1 점]

없는 것은? [1 점]

않은 것은? [3 점]

# 언어 영역

서로 만나 이와 같이 따뜻한 정을 나누었으니, 속세의 인연이 없으면 어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으려 바라건대, 존군께서는 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가시와 영원히 전해 주시옵고, 경솔한 사람들의 입에 전하여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시면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중략 …)

이때 유영도 취하여 잠깐 누워 있다가 산새 소리에 깨어났다. 구름과 연기는 땅에 가득하고 새벽빛은 창망한데, 사방을 살펴보아도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만 김생이 기록한 책만이 있었다. 유영은 쓸쓸한 마음 금할 길 없어 책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왔다. 장 속에 책을 감추고 때때로 내어 보고는 망연자실하여 침식을 전폐하였다. 후에 명산을 두루 찾아다니더니, 그 미친 바를 알 수 없었다고 한다.

- 작자 미상, 운영전 -

않는 것은? [1 점]

[30~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의 줄거리] 안평대군의 궁녀였던 운영은 수성궁에서 김생을 우연히 만나 첫눈에 반한다. 두 사람은 남의 눈을 피해서 금지된 사랑을 속삭이지만, 결국 탄로나 운영은 자살하고 김생도 뒤따라 죽는다. 천상에서 다시 만난 두 사람이 옛일을 생각하며 수성궁에서 노닐던 중, 마침 유영을 만나 자신들의 사연을 이야기한다.

김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사례하고 말하는 것이었다.

대군이 한 번 돌아가시자, 고궁에 주인이 없고 까마귀와 새들이 슬피 울고, 사람의 자취가 이르지 아니하기로 그렸을 뿐입니다. 게다가 새로 병화(??)를 겪은 후로 빛나던 집이 재가 되고, 옥 같은 섬돌, 분 같은 담이 모두 무너지고 오직 섬돌 위에 피어 있는 꽃만이 향기롭고, 뜰에는 풀만이 깔리어 봄빛을 자랑할 뿐이니, 그 옛날의 모습이 바뀌지 아니하였다고는 하지만, 인사(?) 다시와 옛일을 생각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대들은 천상의 사람입니까?"

"우리 두 사람은 본래 천상의 선인(??)으로서 오래도록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더니, 하루는 상제께서 태청궁(??)

제가 반도(??)를 많이 따 가지고 와서 운영과 같이 먹다가 발각 되어 진세(??)에 적하(??)되어 인간의 괴로움을 골고루 겪다가, 이제 옥황상제께서 허물을 용서하사 삼청궁(??)으로 올라가서 다시 옥황상제의 향안(??) 앞에서 상제를 모시게 하였삽기로, 돌아가서 이때를 타서 바람의 수레를 타고 다시 진세의 옛날 놀던 곳을 찾아와 보았을 뿐입니다."

김생이 말을 마치고는 눈물을 뿌리면서 운영의 손을 잡고 또 말하였다.

오늘 저녁에 존군(??)과

# 언어 영역

훈민정음을 창제한 것으로 보인다.

않는 것은? [1 점]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한자로 우리말을 표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한자의 음을 우리말 단어의 발음 기호로 활용하는 것으로서, '길동'이라는 지명을 적기 위하여 '㉞[길]과 '㉟[동]을 끌어와 '㉞㉟'으로 적고 [길동]으로 읽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자의 음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음차 표기'라 한다. 다른 하나는 한자의 뜻, 다시 말해서 훈(?)을 빌려와 우리말의 음을 표기하는 방법이다. '?(밤 울)의 훈으로 [밤]을 나타내고, '?(고개 현)의 훈으로 [고개]를 나타내어, '??'으로써 우리말의 [밤고개]를 표기하는 것이다. '??'을 [울현]이라 읽지 않고 [밤고개]로 읽는 이 방법은 한자의 뜻, 즉 훈(?)을 빌려와 쓴다는 점에서 '훈차 표기'라 한다.

이러한 단어 중심의 한자 차용 표기는 점차 두 단계에 걸쳐 문장을 표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다. 문장 표기의 1 단계는 '???'([아애여], 나 사랑 너)와 같이 '주어-서술어-목적어'의 중국어식 어순을, '???'(나 너 사랑)와 같이 '주어-목적어-서술어'의 우리말 어순으로 바꾸는 단계였다. 1 단계는 점차 명사와 용언 어간에 각각 조사와 어미를 첨가하는 2 단계로 이어졌다. 2 단계에 속하는 향가 표기, 즉 향찰은 '???'에 조사나 어미를 붙여 '?? ?? ????'([아은 여을 애위은여], 나는 너를 사랑하느다)와 같이 상당히 체계화된 문장 표기 모습을 보여준다. 향찰에서는 어절을 단위로 하여 대체로 뜻이 중요한 명사나 용언 어간은 '훈차'를 하고, 문법적 기능이 중요한 조사나 어미는 '음차'를 함으로써, 한 어절의 이다.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역사는 일본의 경우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를 오늘날과 체계화 방법이 올바른 것은? 문자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새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자 차용 표기를 알고 있던 세종대왕은 왜 일본과 달리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는가?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일본어와 우리말이 갖는 음절의 특징에 주목하여 그 이유를 찾는다. 일본어는 음절이 간단하여 한자로 표기하는 데에 문제가 없었을 뿐 아니라 그 수도 50 개 정도면 충분하였다. 이에 비해, 우리말은 [곳], [달]과 같이 한자로 나타낼 수 없는 음절이 많았을 뿐 아니라 그 수도 2,000 개 이상이 필요하였다. 세종대왕은 이러한 한자 차용 표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쓰 기〉

〈읽 기〉

# 언어 영역

[na-neun neo-reul sarang-handa]

[I-neun YOU-reul LOVE-handa]

[I-neun LOVE-handa YOU-reul]

[na-neun neo-reul sarang-handa]

[ai-neun yu-reul reobeu-handa]

[38~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물이나 현상의 본질에 관심을 갖고 이론을 만들어 내는 데 중점을 두는 반면, 기술은 환경을 적극적으로 변형하여 실용적인 발명품을 만들어 내는 데 ㉠ 중점을 둔다. 활동 성과를 평가할 때도 과학은 지식의 진위(??)를 문제 삼지만, 기술은 결과의 성공 여부를 문제 삼는다. 또한 과학적 지식은 별 제약 없이 널리 보급되지만, 기술적인 발명은 특히 보호되어 제한적으로 보급된다.

과학과 상관없이 순수한 기술 분야에서 얻어진 것이다. 이후 바퀴, 그릇, 선박, 인쇄술, 동력 등을 이용하면서 생활이 급격하게 변화되었던 것도 사실상 기술의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발명 과정에 작용하는 원리를 이론적으로 이해하기 이전에도 기술자들은 많은 고안물들을 만들어 일상 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였던 것이다.

추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그 때까지도 과학은 기술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별도의 세계로

존재했다. 산업 혁명의 3대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는 증기 기관과 면직기, 선반을 발명할 때도 당시의 과학은 거의 기여하지 못했다.

새로운 과학적 사실을 검

새로운 과학적 발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법칙과 이론을 제공하게 되었던 것이다.

동성을 다양한 방법으로 시험하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같이 '연구와 개발'의 절차를 강조하는 학문적 태도에서 비롯된 것이 응용 과학이다. 그리하여 응용 과학은 그 목적과 접근 방법이 서로 다른 과학과 기술 사이에서 과학적 이론을 기술에 적용하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기술에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분과 학문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않는 것은? [1 점]

: 과학과 기술의 특징을 차이점에 주목하여 설명하였다.

: 기술의 독자적인 발전 과정을 비판적으로 설명하였다.

: 과학의 변천 과정을 분야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 과학과 기술의 관계를 비유적인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 응용 과학의 성립 과정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였다.

않는 것은? [1 점]

[43~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혹시 이것들이 상상의 산물은 아닌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 감각을 넘어서 물리적 대상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길은 없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보여 주었듯이, 인생이 하나의 긴 꿈에 불과하다는 '꿈의 가설'에서 어떤 ㉠

# 언어 영역

논리적 모순도 나오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

논리

적 가능성이 ㉡

진리를 보장하지는 않으므로, 꿈의 가설을 굳이 진리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도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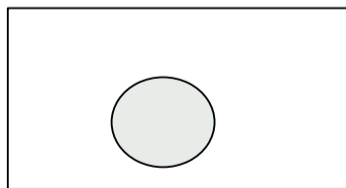
가 경험하는 사실들을 더 잘 설명한다. 개 한 마리가 한 순간 방 한편에서 보였다가 잠시 후 방의 다른 곳에 나타났다고 해 보자. 이 경우에 그것이 처음 위치에서 일련의 중간 지점들을 차례로 통과하여 나중 위치로 연속적인 궤적을 따라서 이동하였다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그 개가 감각들의 집합에 불과하다면 내게 보이지 않는 동안에는 그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꿈의 가설에 따르면 그 개는 내가 보고 있지 않은 동안에 존재하지 않다가 새로운 위치에서 갑자기 생겨났다고 해야 한다.

그 개가 내게 보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마찬가지로 존재한다면, 내 경우에 미루어 그 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다음 끼니 때까지 어떻게 차츰 배고픔을 느끼게 되는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개가 내가 보고 있지 않을 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 동안에도 점점 더 배고픔을 느끼게 된다는 것은 이상해 보인다. 따라서 나의 변화하는 감각 경험은, 실재하는 개를 표상하는 것으로 간주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해되지만, 단지 나에게 감각되는 색깔과 형태들의 변화에 지나지 않는다고 간주하면 전혀 설명할 길이 없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듣는 소리가 어떤 생각, 즉 내가 그러한 소리를 낼 때에 갖는 생각과 비슷한 어떤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최선의 설명을 제공하는 가설을 택하라'는 원칙에 따르면, 나 자신과 나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 나의 지각에 의존하지 않는 대상들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상식의 가설을 택하는 것이 합당하다.

- 러셀, 철학의 문제들 -

잘못 정리한 것은?



[47~5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 미술의 탄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후반의 인상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인상파는 고전주의적 균형과 정확한 묘사를 중시하던 인습을 타파하고 색채 묘사의 혁명을 일으켰다. 인상파 화가들은 미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신화와 같은 품위 있는 주제를 완벽한 구성으로 그려 내는 대신에, 밝게 빛나는 자기 주변의 세계를 생동감 있게 옮겨 놓으려 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평범한 중산층의 행복한 생활 단면이나 해돋이와 같은 순간적 장면도 색채의 아름다운 배열만 지니고 있다면 그림의 소재로 삼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인상파는 하나의 유파로서 그리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세잔과 고흐, 고갱 등의 후기 인상파 화가들이 한편으로 인상파가 이룩한 업적을 당연한 것으로 수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인상파에 대한 반발과 저항을 시도하였기 때문이다. 세 화가는 눈에 비친 자연을 인상파처럼 묘사하는 과정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상실했다고 느꼈고, 그것을 찾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그런데 그들은 인상파를 극복하려 한 점에서는 공통적이었지만 그 지향하는 방향은 서로 달랐다.

먼저 세잔은 인상파가 순간의 감각에만 사로잡힌 나머지 자연의 변함없는 형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생각했다. 그는 색채의 밝음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화면에 깊이와 거리감을 부여하려 했고, 이를 위해 '세계의 모방'이라는 전통적 목적을 버린 채 기하학적 형태와 색채 간의 관계를 탐구하였다. 고희는 인상파가 시각적인 인상 너무 ㉠

빠져 빛과 색의 광학적 성질만을 탐구했다고 판단했다. 인상파의 미술이 정열을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예술가의 활기찬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라고 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거친 붓자국으로 격정적 내면을 표출하였고 필요한 경우 형태의 왜곡까지도 감행하였다. 한편 고희는 서구 문명이 축적한 근대적 학문과 예술 전반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 을 열망했고, 그것은 복잡한 물질 문명 속에서는 발견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미련 없이 세련된 인상파적 요소를 버리고 원시적 가치를 찾아 나설 수 있었다.

현대 미술은 위에서 언급한 인상파와 후기 인상파를 계승한 것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인상파의 주제 접근 방식은 현대 미술의 폭을 넓혀 주었고 세잔, 고희, 고희가 제기한 문제 의식은 입체파, 표현주의, 원시주의, 야수파 등 현대 미술 사조가 등장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 그리하여 현대 미술가들은 사물을 눈에 보이는 그대로 재현한다는 관념에서 벗어나 다른 어떤 시대보다도 자유롭게 창작 활동을 펼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빠진 상태였다.

빠진 농민들을 구제하였다.

빠진 주인공은 파멸의 길을 걸었다.

빠진 아들을 몹시 걱정하였다.

빠진 친구를 도와줌으로써 확인되었다.

얹은 것은?

얹은 것은?



얹은 것은? [1 점]

상으로 적절하지

얹은 것은?

[52~5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파장이 스펙트럼에서 본래 있어야 할 위치보다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는 '적색편이(????)'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은하들이 발하는 빛의 파장이 본래의 파장값보다도 큰 값으로 지구상에서 관측된 것인데, 이는 은하들이 지구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음을 알려 주는 증거였다.

은하가 지구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지구와 은하 사이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사이가 좁아지는 순간이 없이 간격을 1 m 만큼 더 벌린다고 해 보자. 간단히 생각하면 어느 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아서 다음 사람부터 동시에 1 m 씩 이동하면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기준이 되는 사람에게서 첫 번째 사람은 1 m 이동하면 되지만 두 번째 사람은 2 m, 세 번째 사람은 3 m 를 물러서야 한다. 같은

방식으로 N 번째 사람이라면 N m 만큼 물러서야 할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사이가 좁아지지 않아야 하므로, 기준으로부터 먼 사람은 가까운 사람보다 빨리 움직여야 하는 것이다.

그의 발견 이전에 많은 천문학자들은 우주는 움직이지 않는 존재라고 생각하여 정적(?)인 우주의 모습을 기술하려고 애썼다. 정적인 우주관이 당시의 지배적인 우주관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하들의 움직임을 배제하고 우주를 엮어 놓으면 중력에 의해 은하들이 모여들기 때문에 그 정적인 모습은 바로 붕괴된다. 하지만 허블이 우주가 정적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이 문제는 해결되었다.

어 접근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팽창할 때 먼 은하가 더 빠른 속도로 멀어져 갔던 것처럼 이 경우에는 먼 은하일수록 더 빨리 우리에게 접근해 올 것이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이르면 모든 은하가 한 곳에 모이게 되는 '태초'의 순간이 된다. 우주의 모든 물질이 모여 있었으니 태초의 우주는 엄청나게 밀도가 높고 뜨거웠을 것이다. 그 상태에서 대폭발을 일으켜 오늘날의 우주가 되었다는 것이 현대 우주론의 정설이다.



않은 것은?

않는 것은? [1 점]

[56~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초기의 경제학 이론에서는 상품 가격이 수요와 공급의 요인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이론에서는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욕구를 지니고 의사 결정을 한다고 전제하였다. 그러나 실제의 인간들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서로 다른 선택을 하며 성장 과정의 차이나 교육의 정도, 자신이 속한 집단의 특성 등에 따라 욕구의 우선 순위나 성취 방식이 다르다. 그러므로 인간들의 소비 욕구는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차별화, 모방, 유행 등 문화적 요인에도 영향을 받는다.

㉠

인간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이 속한 집단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나타낸다. 소비하는 품목과 방식은 성, 연령, 직업, 계층, 신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부르디외에 따르면, '취향'은 가정 환경과 같은 개인의 성장 배경에서 길러진 것이지만 자신의 취향을 '타고난

성향으로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취향을 ㉠  
백안시(???)함으로써 계층을 구분하는 강력한 심리적 기제로 작용한다고  
한다.

18세기 이전까지 영국에서 설탕은 이국적인 향신료이자 약품으로  
귀족들만 향유하던 사치품이었다. 그러나 식민지에 플랜테이션이  
만들어져 설탕이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설탕의 소비는 중산층과  
노동자층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다. 중산층과 노동자층의 설탕 소비는  
처음에는 귀족들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설탕이 대중화되면서 더 이상  
특별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표시하는 수단이 되지 못했다. 이렇게 되자  
귀족들은 다른 소비재를 선택하여 다른 계층과의 차별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이처럼 소비 방식에서 나타나는 모방과 차별화 전략은 한 사회  
내에서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소비의 또 다른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유행을 들 수 있다. 유행의 특징은  
끊임없이 새롭게 만들어지며 빠르게 확산되고 소멸된다는 것이다. 유행은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을 대비시키며,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하고자 하는  
'개성화'에서 비롯되지만,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대중 심리를 자극하여  
충분히 확산되면 그 수명을 다하게 된다. 인류 역사상 현대의 자본주의  
체제만큼 유행이 소비에서 중요한 시대는 없었다. 현대의 자본주의적  
생산 체계는 시장의 확대를 위하여 유행 메커니즘을 이용하고 있고,  
광고나 백화점, 홈쇼핑 등에서 발전된 판매 기술은 유행의 소비를  
촉진시키고 있다. 백화점은 새로운 상품을 찾는 소비자들의 일상적인  
소비의 순례 장소가 되었고, ㉡

광고는 대중에게 신상품의 이미지를 전달하는 가장 강  
력한 매체가 되었다. 유행이 소비를 주도하면서 현대의 소비  
는 점차 상품 자체보다는 그 상품이 표상하는 이미지와 기호  
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 학습에 활용하기에 가장 거리가

않은 것은? [1 점]

먼 사이트는? [3 점]

통합검색   디렉토리   웹문서   이미지   뉴스   백과사전  
통합검색 v   소비 유행 자본주의   검색

먼 것은? [1 점]

## 언어 영역

## 언어 영역

## 언어 영역

## 언어 영역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 ( 표기 ) 했는지 확인하십시오 .